

167장 즐겁도다 이 날

- 1 즐겁도다 이 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 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 2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 3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 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 후렴 즐겁도다 이 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 1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하리라 ×2
- 2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2
- 3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하셨네 ×2

기도 담당

4/22(화)	4/23(수)	4/24(목)	4/25(금)	4/26(토)	4/28(월)
전재우 안수집사	이규진1 안수집사	김덕만 안수집사	박종훈 안수집사	박기철 안수집사	이태호 안수집사

2025년 4월 22일(화)

이른아침예배

인도 : 장지훈 목사

예배를 여는 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167장 다 같 이
기 도 전재우안수집사
성 경 봉 독 고린도후서 13장 11~13절 인 도 자
찬 양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새벽찬양대
설 교 『은혜의 손길 안에 사는 사람』 장지훈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같 이
찬 송 384장 다 같 이
축 도 설 교 자

📖 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13:11~13>

- 11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 12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 1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
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5년 4월 22일(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부활의 일상을 살아가는 이 두 번째 날도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 기억하며, 오늘도 가장 먼저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이 한 날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깨닫지 못하는 그 때에도, 매순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여, 주님의 은혜 안에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며,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경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되신 주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여기까지 걸어온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내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목사님과 늘 동행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부르시고 맡기신 자리마다 충성되이 순종하며, 넉넉히 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모든 교역자, 당회와 제직, 새문안의 모든 성도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을 믿으며, 주 안에 늘 형통한 삶 살아가는 존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의 주인 되신 주님! 기도로 시작한 이 나라,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사랑으로 이 땅의 모든 영역들을 다스려주셔서, 여전한 혼돈과 혼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부활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대통령이 잘 선출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 친히 개입하여 주옵소서. 이상기후와 여러 사건과 사고, 재해로부터 더 이상의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돌보아 주시는 손길을 세밀하게 경험하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